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ING, 은행과 보험부문 분리

□ **ING 금융그룹은 'Back to Basics' 전략의 일환으로 은행과 보험영업을 완전 분리함으로써 업무의 단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힘.**

o ING는 그간 은행과 보험사업을 겸업함으로써 규모의 경제, 자본의 효율적 조달, 수익의 안정화를 얻을 수 있었으나 금융위기로 인해 자산손실이 9000여억원에 이르면서 은행과 보험의 분리를 결정함.

□ **모든 보험사업부문(투자관리 영업 포함)은 2013년까지 상장 또는 매각의 방법을 통해 은행과 분리되며 이를 통해 ING는 부채 및 정부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을 변제할 것으로 보임.**

o 금번 결정은 유로집행위원회의 공정경쟁 회복 및 생존가능성 제고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투자영업부문과 보험사업부문의 상장 또는 매각을 통해 ING가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받은 100억유로의 구제금융과 280억유로의 채무 보증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o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2013년경 ING의 자산은 대략 6천억유로가 감소되며 2008년 9월 30일 자산 수준과 비교할 때 약 30%가 축소될 것으로 보임.

o 보험사업부문은 베네룩스, 미국, 중부유럽, 남미, 아시아지역의 모든 사업부문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분리 운영될 전망임.

□ **금번 분리방안은 유로집행위원회와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오는 11월 25일 특별 주주총회에 본 안건이 상정될 예정임.**

o 유로집행위원회는 ING이 분리방안 승인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ING Direct USA(온라인은행) 매각을 제시함.

□ **또한 ING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Core Tier1 증권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2010년 1월까지 구제금융의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.**

o ING는 75억유로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며 이중 50억유로는 Core Tier1 증권을 구매함으로써 자본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임.

(ING 10/26, Financial Times 10/26)